

공동번영 위한 이머징 마켓 투자 확대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 국민연금-전북도 공동개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JFIC)를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왼쪽)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기금운용분부를 중심으로 한 전북 금융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추진했다. 또한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블랙록(BlackRock)과 같은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한국투자신탁, 삼성자산운용 등 국내 자산운용사까지 26개 금융회사의 임원이 참석해 전주에서 국내외 금융인이 모인 최초의 금융행사도 개최했다.



전주 라한호텔에서 '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가 열린 가운데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1 전북국제금융컨퍼런스'는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이전의 컨퍼런스와 달리 기금투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제를 놓고 관련 금융기관이 패널로 직접 참여해 이머징 마켓 투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전개했다. 세션 1은 강신우(전 한국투자공사 CEO), 권구훈(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와 Pramod Dhawan(PMCO) 이머징 마켓 탐정이 주시 및 채권 투자 기회와 위험요인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세션 2에서는 대체투자 시장에서의 안정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투자 시 ESG 평가 요소를 반영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지역의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고 전북 금융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패널토론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유튜브 '지니포럼'을 통해 실시

간 생중계됐으며,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해서도 공유했다. 이날 국내외 투자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새만금 산업단지 등 주요 산업단지 소개 및 전북 투자환경 설명회도 실시해 금융행사로서의 의미를 더했다. 국민연금공단 김용진 이사장은 개최

사를 통해 기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 다변화, '시장과 시스템 확충', ESG 투자 확대와 K-ESG 발전 노력'에 대한 의지를 밝혔으며 "지역 자적인 금융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금융교육기관 유치 등 전라북도와 전주의 금융도시 비전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영태 기자

시험분석비용 지원 참여 도내 소기업 10일까지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이현웅)이 오는 10일까지 '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기업을 추가 모집한다.

'시험분석비용 지원사업'은 소기업 생산제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으로, 공인시험분석기관에서 소기업이 개발한 시제품이나 제품에 대한 품질·성분·성능 등 검사비용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 사업은 지난 2013년 시작해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성장동력 및 4차산업혁명과 같은 주력 분야에서 소외된 비(R&D) 분야 영세 소기업에 주목한다. 가품에 대비처럼, 기업지원의 사각지대 해소에 특히 이바지하는 중이다.

올해는 8월까지 192개 기업을 지원하면서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편성 예산도 조기소진 했으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려고 추가예산을 편성해 이달과 내달에 추가지원한다.

/이영태 기자



서부산림청, 산림 불법행위 집중단속기간 운영... 31일까지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조준규)은 본격적인 입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단속대상은 입산철(송이, 잣, 산약초 등) 불법채취, 국유림보호협약지(입산철 양여지), 온라인상 위법행위 게시물 등이며,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관할 구분없이 단속하고, 즉시 관할 기관에 인계해 사법처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으로 입산물을 굴·채취한 행위 가 적발될 경우 산림지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영범 의심되면 '1339'로

작년 시설오이 농가 소득 제일 높았다

전년보다 4.1% 증가한 1263만원 수준... 오이 다음으로 시설포도·가지 순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0년산 승인통계 농산물(50개 작물)에 대해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년 대비 단위면적당 식량작물은 10%, 노지채소는 10%, 시설채소 15%, 노지과수 4%, 시설과수(포도) 36% 소득이 증가했고, 화훼(시설장미)는 40%, 특용작물은 0%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아르(1,000㎡)당 소득이 가장 높은 작물은 시설오이(축성)로, 전년 대비 4.1% 증가한 1,263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시설작물 중 오이 다음으로 소득이 높은 품목은 시설포도(1,036만원), 시설가지(1,019만원)였다.

노지작물 중에서는 포도(598만원), 블루베리(429만원) 등 과수 소득이 높았다. 오이는 초기 일조량 증가(작황 양호)와 조기출하로 높은 가격이 형성돼 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파프리카·배는 최근 3년간 소득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로 행사 수요가 급감한 시설장미는 2019년 소득순위 2위(1,036만원)에서 2020년 12위(823만원)로 급락했다.

전통적 식량작물인 쌀보리(19만원), 결보리(8만원), 밀(6만원) 등은 생산량 감소(병해)와 소비 부진으로 소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시간당 소득은 고령자무(5만원), 쌀보리(5.1만원), 시설포도(4.1만원), 쪽파(3.1만원) 순으로 높았다. 노지채소는 포장재(발레기 거래)로 수확에 드는 노동력이 감소했고, 식량작물은 기계화·생력화 재배로 작업단계를 투입되는 노동력이 감소했다. 시설과수는 자본집약적 재배로 부가가치가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4년간(2017~2020년) 소득변동이 적은 작물은 딸기로 나타났다. 단기 작물전환이 어려운 식량작물과 과수원·시설 기반 재배기술이 안정화된 과수·시설채소는 변동이 적었다. 전년 시세에 따라 작물전환이 상대적으로 쉬운 노지채소는 변동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소득증가 작물은 29개이고, 소득감소 작물 21개로 분석됐다. 소득이 20% 이상 증가한 작물은 시설포도(36%), 반축성토마토(24%) 등이

있었다. 반면,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작물은 시설장미(△40%), 복숭아(△29%) 등이었다.

농촌진흥청 생산경영과 우순근 과장은 "2020년은 기상악화로 농가 간 품위 및 수량 변화가 컸다. 특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농산물 소비침체, 노동력 부족으로 농가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공급부족에 따른 일부 작물 가격이 상승해 평균 소득을(47.3%)이 전년 대비 1.6%p 증가했다"며 "농가에서는 내재해성 품종 및 재배기술을 이용한 수요자 맞춤형 농산물을 생산하고, 노동력과 시장성 등을 고려한 적정 재배면적 확보와 비용 절감 등으로 농업인의 경영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소득조사는 농업인 작물 선택, 경영개선 연구·지도, 농업정책 지원 등에 활용된다. 이번 조사 결과는 10월 초 '2020년 농촌소득조사자료집'(www.rda.go.kr),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rda.go.kr),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장애인고용 신뢰기업 '은상' 수상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는 지난날 29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장애인 고용신뢰기업으로 인정받아 '2021년 트루컴퍼니 대상 은상'을 수상했다.

트루 컴퍼니(True Company) 대상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난 2008년부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여한 기관과 기업에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포상하는 제도다. 이번 수상은 지난해 공공기관 최초로 발달장애인 중심의 안전문화교육 공연단을 창단해 장애인을 위한 새 일자리 발굴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데 따른 평가다.

공사는 지난해 9월 장애인고용공단과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14명을 특별 채용해 '유니버설 안전예측단'이라는 전기안전 문화공연단을 창단해 운영해 오고 있다. 전기시설의 안전을 책임진 업무특성상 장애인 적합한 직무 발굴에 어려움이 컸던 상황에서 문화공연단 창단은 장애인 채용의 새로운 길을 열었다.

전기안전 문화공연단은 연기자와 스탭 모두 장애인들로 구성해 지난해 말부터 올 6월까지 제1기 활동에 이어 8월부터는 18명으로 인원을 늘려 제2기 활동을 하고 있다.



이 공연단은 당초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특수학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기안전 뮤지컬 공연을 계획했으나 감염병 확산 여파로 현장 활동을 최소화하면서 공연 모습을 영상물에 담아 유튜브, SNS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로부터도 일자리 창출 우수사례로 손꼽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박지현 사장은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채용의 새 길을 열고자 했다"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문턱 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고용과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8월 전북 광공업 재고 22.9% ↓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8월 전북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광공업 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장비(32.0%), 음료(36.4%), 기계장비(8.5%)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45.6%), 식료품(-14.5%), 금속가공(-41.2%)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1차금속(121.5%), 기계장비(39.5%), 자동차(13.1%) 등은 증가했지만 금속가공(-11.2%), 섬유제품(-17.2%), 기타운송장비(-61.0%) 등이 감소했다.

광공업 출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학제품(-6.1%), 금속가공(-18.2%), 섬유제품(-19.7%) 등은 감소했지만 1차금속(46.6%), 기계장비(25.7%), 식료품(4.7%) 등이 증가했다.

한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80.2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오락·취미·경가용품 등은 증가했지만 화장품, 신발·가방, 가전제품, 기타상품 등이 감소했다. /이영태 기자

최대 5%까지 캐시백 지급

전북은행, 내달 30일까지 JB카드 Oh!매직 페스티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이 오는 11월 30일까지 JB카드 해외직구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JB카드 Oh!매직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응모고객을 대상으로 해외 이용액 누적 20만 원 이상 시 이용 금액의 최대 5%까지를 캐시백으로 지급한다.

고객별 월 최대 3만 원 한도로 지급하며 응모시점과 무관하게 행사 기간 내 해외 가맹점 이용 실적에 따라 다르다.

뿐만 아니라 일시불 결제만 가능한 해외 결제의 특성상 5만원 이상 결제한 고객을 위해 2~3개월 무이자 환부 전환도 가능하며 가까운 전북은행 영업점 및 고객센터와 홈페이지, 모바일뱅킹 APP를 통해 환부 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 및 상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영업점, 고객센터(1588-4477), 홈페이지(www.jbank.co.kr), 뉴스마트 뱅킹 어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태 기자

도내 제조기업들, 4분기 경기 '긍정적'

전북상협 전망 조사결과 106p로 1분기 만에 다시 상승세

우리나라 경제가 코로나9 변화비 리스의 확산 등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면서 도내 제조기업들은 4분기 경기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윤방섭)가 도내 108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2021년 4분기 전북지역 제조업체 기업경기 전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106'으로 집계돼 1분기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기실사지수는 100 이상이면 '나름 분기의 경기를 지난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고, 100 이하이면 반대로.

업종별 전망치는 섬유제품(140)이 조사업종 중 가장 높고 화학(135)과 음식료(107) 업종 또한 기준치 '100'을 넘었고, 그밖에 비금속광물(100), 전기전자(100), 자동차(100), 금속기계(84),

종이나목(50) 업종은 보합 또는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기업규모별은 중견기업을 포함한 도내 대기업의 BSI가 '118'로 올해 4분기 경기상승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중소기업(104)도 기준치 '100'을 넘어 4분기 호전을 예상했다. 또한 매출유형별로는 수출기업이 '140'을 기록해 내수기업(108)에 비해 높은 기대감을 보였다.

전북상협 윤방섭 회장은 "다가오는 4/4분기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소비 둔화, 자금난,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기대감을 보이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적인 백신 접종의 확대에 의한 교역량 회복, 원달러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 채산성의 개선, 정부의 위드코로나 예고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영태 기자

10월 전북지역 중기 업황전망지수 '보합세'

전북 경기전망은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와 지속적인 수출호조를 바탕으로 2개월 연속 반등하고 있는 전국 체감경기와 비교해 좀처럼 호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내수위주 영세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경제 특성상 위와 같은 긍정적 요인보다는 기준급이 인상 등으로 인한 자금난 지속적인 원자재가 상승 부담 등 부정 요인들을 더 크게 체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박승찬)는 지난날 13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소재 12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10월 전북지역 중소기업 경기전망 조사에 따르면 10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68.7로 올 8월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p 상승)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업황전망은 제조업에서 74.3으로 지난해보다 1.4p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p 하락했고 비제조업은 61.1로 지난해보다 1.9p 하락,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기계·대리기관영업평가의 1.7점, 주요사업평가의 9.6점 향상된 수치로, 직원들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공사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 /김윤상 기자

전개공, 전문기관 '인권영향평가' 실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천환)는 기관 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을 통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고 지난날 30일 밝혔다.

이번 인권영향평가는 공사의 경영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해 평가하고 인권 부정적인 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경영인증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평가결과 인권경영 적극 실천기반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공사 경영활동 전반에 대한 기관운영평가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고용

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산업안전 보장,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현지 주민·고령·직장 내 인권보호 등의 11개 인권영역 173개 지표에 대해 평가해 95.9점을 획득했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 주요사업평가(8개항목 26개 지표) 결과도 98.1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는 전자·기계·대리기관영업평가의 1.7점, 주요사업평가의 9.6점 향상된 수치로, 직원들은 물론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 사전 예방을 위한 공사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다. /김윤상 기자